

무등보

전남매일

광주원보

아시안컵 참석차 북한 방문 보성군청 김용철 역도 감독

“역도로 물꼬 튼 남북 체육 활발한 교류 시작 됐으면”

“역도로 물꼬 튼 남북 스포츠, 올 시즌에는 훈풍이 불었으면...” 김용철 보성군청 역도 감독에게 2013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한국실업역도 연맹 전무인 김 감독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2013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총괄로 ‘가깝지만 먼 땅’을 밟았다.

비자 발급부터 비행기 예약까지 한국과 베이징을 오가며 조마 조마 평양행을 준비했고, 선수들을 독려하며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올렸다. 한국 스포츠에 새 역사를 남긴 그날은 가슴 벅찼던 기억이지만 아쉬움의 기억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애파스포츠가 많았는데 태극기 사건도 그 중 하나다. 경기장 개장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요청대로 90cm·120cm 사이즈의 태극기를 준비해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서 북한에서 직접 참가국 국기를 120cm·180cm 사이즈로 제작해서 개장했다. 경기장이 워낙 커서 큰 사이즈로 제작을 했는데 태극기만 작은 사이즈로 걸려있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태극기 도안이 없어서 우리 국기를 큰 사이즈로 제작하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다른 나라 국기를 태극기 사이즈에 맞춰 재제작해 걸기도 했다”고 웃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경기장을 찾아 3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켰다. 시상식 때는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 태극기도 게양이 됐다. 평양민속공원을 방문했는데 남한의 문화재가 자세 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선전의 고향이 평양북도 영변이라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방문이었다”고 특별한 순간을 얘기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날의 감동과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대회 직후 이산가족 상봉 무산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 스포츠 교류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해서 아쉽다”며 “대회기간 같이 움직였던 북한 관계자들과는 마지막에 물면서 헤어졌다. 처음에는 기싸움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했는데 형·동생으로 헤어졌다. 다시 꼭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올 시즌 남북스포츠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지역 체육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다. 보성군청 역도부의 재정비가 그 시작이었다.

김 감독은 “그동안 성적을 잘 내다가 지난해 주춤하기는 했다. 신진 선수의 영입으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2~3년 안에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성에는 대구체고와 충남 읍암중 역도부가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고, 20일부터 아산 문포중 등 3개 팀이 더 찾을 예정이다. 동상고 야구부도 김 감독과의 인연으로 보성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보성=김어룡기자 wool@kwangju.co.kr



“

북한서 올린 애국가 몽글

남북정색 분위기 아쉬워

기싸움 했던 北 관계자

형·동생으로 만나자 약속

”

광주 10위 · 전남 8위 목표

‘동계스포츠 대제전’ 내달 26일 개막

‘동계스포츠의 대제전’인 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다음달 26일부터 3월1일까지 4일동안 서울·강원·경북·충남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광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위, 전남은 8위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동계체전은 소치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지난해 대회보다 10여일 늦게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인원 1,200명 선수 2,500명 등 총 3,700명이 참가하며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크로스컨트리·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등 모두 5종목이 펼쳐진다.

경기종별로는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로 나뉜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1일 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빙상·아이스하키·스키·바이애슬론·컬링 5종목에 선수118·코치17명 등 모두 135명이 출전기로 확정했다.

종목별 출전 인원은 스키 37명,

빙상 44명, 컬링 25명, 아이스하키 13명, 바이애슬론 1명이다.

전남은 빙상·스피드스케이팅 등 4개종목에 선수77·경기임원 30·본부임원 52명 등 모두 159명이 참가한다.

전남 선수단은 금3·은3·동2개 등 총 8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와 스프린트 7.5km, 계주18km에서 문지희(고흥군청)가 3관왕을 겨냥하고 있고, 빙상피겨 싱글C조에선 여대부 박혜영(순천대), 싱글D조에선 중등부 김유진(나주중), 스키 스노보드에선 여일부 채마리솔(전남협회)이 각각 메달사냥에 나선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여일부와 여초부서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계체전은 21일 아이스하키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사전경기가 치러지며 26일부터 피겨와 크로스컨트리 종목 등 본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26일 오전 10시 강원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볼룸에서 열린다.

/고광민 기자

해남동초 축구부, 전국유소년 대회 3위

해남군 주관 상위 24개 팀 출전

축구 명문고인 해남동초등학교(교장·김천옥) 축구부(감독 박상진)가 유소년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해남군이 주관한 평결 공룡기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에서 3위를 차지, 지역 유소년 축구 명성을 이어갔다.

지난 3일부터 1월12일까지 우슬경기장 축구장에서 열린 평결 공룡기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은 전국대회 상위 3위 이상 입상한 경력을 가진 팀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질 수준높은 경기로서 24개 팀이 출전했다.

해남동초 축구부는 U-12(6학년 이하) 대회만 출전해 조별 토너먼트 결과 조2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나 4강에서 여수 미평초에 패하여 3,4위전에서 무승부로 3위를 차지했다. 해남동초의 선수 중 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5학년 7명, 4학년 3명, 3학년 5명으로 U-12대회에서도 4학년과 3학년이 출전한 선수층이 얇고 신체적으로 열세를 보였으나 해남동초만의 특유의 단결력과 투지로 조별 1차예선 1위, 조별 2차예선 2위로 상위팀 8개만 진출하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경기는 해남동초 축구부의 정점을 보여준 투지와 기량이 탁월한 경기였다는 것이 축구관객자들의 평이어서 2014년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해남동초등학교 축구팀이 평결공룡기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에 참가, 3위를 차지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전남 해남읍 우슬경기장에서 전국 2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대회에서 해남동초 축구팀은 충남 대전초(2:0), 광양 제철남초(2:1), 서울 상봉초(3:0)를 차례로 누르고 상위 12개 팀이 포진한 A그룹 조1위로 1차 예

선을 통과했다.

조별 2차 예선에서는 여수미평초를 1대0으로 이기고, 충북 덕성초에 2대0으로 패했으나 조2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 8강에서 서울 대동초를 1대0으로 파울리고 4강에 올랐으나 여수 미평초등학교에 2대0으로 패했다.

3, 4위전에서 전북 부안초등학교와 점진 끝에 2대2 무승부로 공동 3위에 올랐으며, 팀 최우수선수로 강승호(5년, 주장), 이근영 선수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참가조건이 전국대회 상위 3위 이상 입상한 팀들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라 전제적인 대회의 질이나, 선수의 질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남=박희기자

